|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6월 모의고사 제2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제2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①	2	18	④	3	35	①	2	35	②	2
2	②	2	19	④	2	36	④	2	36	①	2
3	③	3	20	③	3	37	④	2	37	②	2
4	①	2	21	⑤	2	38	③	2	38	①	3
5	②	2	22	①	2	39	②	2	39	③	2
6	③	2	23	③	2	40	②	3	40	⑤	2
7	⑤	2	24	⑤	3	41	⑤	2	41	④	2
8	②	3	25	②	2	42	②	2	42	⑤	2
9	①	2	26	①	2	43	⑤	2	43	①	2
10	②	2	27	④	2	44	②	2	44	④	2
11	②	2	28	②	2	45	③	3	45	①	3
12	④	2	29	③	2						
13	⑤	2	30	⑤	3						
14	③	3	31	③	2						
15	④	2	32	④	2						
16	①	2	33	④	2						
17	①	2	34	⑤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제2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4] 현대시

➔ **작가 연계 : 백석, 「선우사 – 함주시초 4」 (수능특강 233쪽)**

➔ **연계 지문 : 나희덕, 「섶섬이 보이는 방 – 이중섭의 방에 와서」 (수능특강 103쪽)**

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4연에서는 '욕심이 없어', '손아귀 하나 없다', 제5연에서는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반복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오답풀이] ③ (가)의 화자는 '흰밥과 가재미'를 '우리'라고 칭함으로써 인격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을 청자로 삼아 자신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는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에 딸린 '고방'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중섭' 가족의 모습을 진술한 후,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알지 못한 채 살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고방'에서의 행복했던 삶이 머지않아 끝날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빈 조개껍질에 세 든 소라게(소라게는 빈 소라 껍데기나 조개껍데기를 골라 옮겨 다니며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중섭' 가족의 삶이 안정된 거처를 갖지 못한 채 흩어져 살게 될 운명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암시와 비유를 통해 시를 마무리함으로써, 화자는 다가올 미래의 불행을 알지 못한 채 짧은 행복을 누리는 인물들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④ (가)의 화자가 ⓐ와 자신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지도, (나)의 화자가 ⓑ에 대해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가)에서는 표면화된 화자인 '나'의 발화를 통해 ⓐ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지만, (나)의 화자는 ⓑ에 대해 도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모래톱', '한벌판', '산골'은 그 속에서 화자가 '흰밥'과 '가재미'와 더불어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 온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지, 대상과 더불어 살아갈 날을 상상하여 나타낸 것이 아니다. <보기>와 결부하면 '모래톱', '한벌판', '산골'이 등장하는 제3연은 과거의 공동체적인 삶에 현재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인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지만, 제3연을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고 읽을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나조반'이 낡았다고 표현한 것은, <보기>에 따르자면 일제가 주도한 근대화로 인해 궁핍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일상을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처럼 피폐해진 현실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 놓인 밥과 반찬일 '흰밥'과 '가재미'가 화자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시인의 상상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파리했다'는 것은 마르고 핏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낸 시어이지만, 화자는 이를 '너무나 정갈'했기에 초래된 결과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일제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가난과 소외를 긍지 어린 자세로 수용하는 시인의 태도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욕심' 없고 '착하디착'한 존재인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 '세상'은 가혹한 수탈이 자행되고 전통적 삶이 파괴된 일제 주도하의 근대적 세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세상'의 '밖에 나'도 상관이 없다는 진술은 일제가 주도한 근대적 삶의 방식에 대한 시인의 거부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시의 맥락 속에서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차라리 관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은 '고방'의 협소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인물들이 가난한 생활에 지쳐 죽음을 생각했던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관'을 인물들의 궁핍한 현실이나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을 환기하는 시어라고 보더라도, 뒤따라 이어지는 '게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는 시행과 그 이후의 전체 시상 전개를 볼 때, 그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삶을 유지해 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방'이 너무 좁아서 서로를 '끌어안'고 잘 수밖에 없는 모습을 조개가 자신의 '껍질'을 다무는 모습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다. 가족들이 애정으로 서로를 감싸는 좁은 '방'을, '껍질'을 다물어 자신의 내부를 지키는 '조개'의 특성에 결부하여 표현함으로써, '방'이 외적 시련으로부터 가족을 지켜 주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⑤ '소라게'는 조개, 고동 등의 껍데기를 집으로 삼는 생물로서, 자랄 때마다 큰 껍데기로 옮겨 가야 한다. 화자는 '소라게'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중섭' 가족이 행복했던 고방 생활을 떠나게 될 것임을, 그래서 그들의 행복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임을 환기하고 있다.

[5 ~ 9] 예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1쪽**

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클레는 작품의 파괴 자체도 예술적 창작 요소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재구성은 절단이라는 창작 요소가 더 부각되는 과정이다.

[오답풀이] ① 절단 콜라주는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체주의 콜라주와 달리 캔버스 바깥의 현실을 환기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저 동질성을 지니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조각을 재구성하는 '수정된 동질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절단 콜라주는 예술의 부정으로 귀결되지 않고 창조적 성격을 갖는다. ③ 입체주의 콜라주는 평면에 3차원 환영을 재현하는 전통적 회화에 대한 반발로 시도되었으며, 클레의 절단 콜라주도 이러한 의도를 따른다. ④ 클레의 「함마메트의 모스크」는 풍경을 재현한 자신의 그림을 절단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상단을 막아 원근법의 공간적 연속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⑤ 보링거에 따르면 예술 의욕의 하나인 '감정 이입 충동'은 자연의 유기적인 아름다움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충동으로, 재현을 통해 충족된다.

6. [출제의도] 지문에서 소개된 두 대상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입체주의 콜라주뿐만 아니라 절단 콜라주도 재료가 전하는 물질적인 인상을 활용한다. 절단 콜라주는 재료의 너덜너덜한 재질이 절단의 흔적으로 중앙에 노출됨으로써 물질적인 인상을 주는 효과를 시각적 요소로 사용한다.

[오답풀이] ① 입체주의 콜라주는 캔버스에 종이, 천, 나뭇조각 등을 붙이는 것이고, 절단 콜라주는 회화 작품을 잘라 붙이는 것이다. ② 입체주의 콜라주는 캔버스와는 다른 이질적인 재료를 활용한 반면에, 절단 콜라주는 캔버스와 동질적인 그림을 재료로 활용한다. ④ 절단 콜라주는, 입체주의 콜라주와 달리 창작의 결과물인 회화 작품을 절단하여 재료로 사용한다. ⑤ 입체주의 콜라주는 캔버스에 이질적인 재료를 붙이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절단 콜라주는 회화 작품을 절단하는 파괴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단편들을 캔버스에 붙인다.

7.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특정 주장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예술은 보이는 것의 모방이 아니라는 클레의 말은 자연의 재현이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술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인 감정이나 정신을 다루는 추상에 더 큰 진리가 있다는 뜻이다.

[오답풀이] ① 회화 공간 너머의 현실을 환기하는 데서 예술의 가치를 찾는 것은 입체주의 콜라주에 해당한다. ② 클레는 가시적인 대상은 세계의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보았지만 예술 활동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의 절단 콜라주는 파괴마저 창작 요소로 활용한 의미 있는 창작 활동이다. ③ 클레에 따르면 파괴된 단편들이 통제에 의해 재구성되는 단계가 절단이라는 창작 요소를 더 부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④ 클레는 작품을 영원한 것으로 남기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절단 콜라주를 통해 작품의 존재 양식이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인 것일 수 있음을 보였다.

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클레는 자신의 작품 A를 절단하여 상하 단편의 위치를 바꾸어 붙여 작품 B, 「선택받은 소년」을 만들었다. A에서는 소년이 성당에 둘러싸여 있지만 B에서 소년은 기하학적 모양에 갇혀 있다. A에서는 소년의 머리 위로 내려오는 새가 성령을 상징하지만 B에서 새는 전시에 추락하는 전투기로 보인다. B에서 소년은 전시의 어릿광대로 보여 소외된 예술가를 상징한다.

[정답풀이] 클레의 절단 콜라주는 재현을 파괴하고 파괴된 조각을 재구성함에 따라, 세계에 가시적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음 직한 세계를 창조한다. 또한 이때 있음 직한 세계를 창조하는 추상 충동은 내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충동이다. 파괴와 재구성을 거쳐 A에서의 종교적 소년이 B에서 소외된 예술가로 바뀐 것은, 클레가 내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음 직한 세계를 창조한 결과이다.

[오답풀이] ①클레는 단편들을 절단하거나 배치할 때 창조성이나 의도적인 고안을 포기하지 않았다. B에서 소년이 기하학적 모양에 갇힌 것은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③클레가 단편들을 붙일 때 둔 빈 공간은 작품마다 각기 다른 효과를 낳는다. 아래쪽 단편을 장식적 요소로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B에서 나타났으나, 이것은 이 작품에 나타난 효과인 것이지 절단 콜라주의 고유한 기법인 것은 아니다. ④클레는 재구성을 통해 본래의 그림이 지니던 의미에 변화를 일으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따라서 머리 위로 내려오던 새가 B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본래의 의미에 절단의 흔적을 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 것이다. ⑤클레는 작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 존재 양식이 순간적임을 보였다. 그래서 절단 콜라주의 작업은 재료로 사용된 작품을 창작할 때의 활동을 성찰하는 행위가 된다. 즉 B를 창작하는 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창작하는 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9. [출제의도] 지문의 구절과 바꿔 쓸 수 있는 구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의 존재 양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게 될 때'라는 구절은 '어떠한 작품이든 새롭게 수정될 수 있음이 인정될 때'라는 뜻을 갖는다. 이는 작품의 해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작품이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어서, 다른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태, 그 결과 작품이 영원하다고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10 ~ 14] 고전소설-수필

➔ 연계 지문 : 김만중, 「구운몽」 (수능특강 309쪽)
➔ 이황, 「이평숙에게 주다」

10.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황제는 양소유가 정 소저와 약혼한 것을 이유로 거절의 의사를 표한 것에 대해, '상서는 정가 여자와 혼례를 행한 일이 없는지라, 정가 여자는 자연히 갈 곳이 있을 것이니'라고 말하였고, 또 '혼례를 행치 아니하였으니 정가 여자가 무슨 수절을 하'겠느냐고 말하였다. 이는 곧 혼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혼이 되면, 그 여성은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③정 사도가 양소유에게 받은 예물('납폐')을 황태후의 명에 따라 반납한 곳은 궁궐이 아니라 '화원'이다. '화원'은, '정 사도의 관대함을 입어 묵을 곳을 정하'였다는 양소유의 말과 '내집 화원에 계속 머무는 것이 송구하니' 아쉬워도 '다른 거처를 정하'라고 한 정 사도의 말을 종합할 때, 정 사도의 집 안에 있는 양소유의 거처임을 알 수 있다. ④춘운은 정 소저의 어떠한 말도 양소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단지 춘운은 '소저가 정한 일'에 대해 전하고 있을 뿐인데, 그 내용도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가 죽고 나면 여승이 되겠다는 것이지 양소유가 상소문을 올려 공주와의 혼담을 파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11. [출제의도] 발화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예부터 부마를 정하면 얻은 아내라도 소박하'였다는 것은 양소유도 부마로 정해졌으니 관습에 따라 이전의 정혼자와는 파혼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발화이다. 따라서 관습을 환기하여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문맥상 ㉠의 뜻은, 양소유가 상서로서 조정의 체면을 알 것인데 어찌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한단 말이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명을 거부한 양소유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말이지 회유(=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황태후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는 양소유가 아니라 월왕 혹은 황제라고 보아야 한다. ③자신이 상소하면 '조정에 공론'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말은, 이 사건에 대해 조정 대신들 사이에 자신을 지지해 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 사도의 동참을 요구하는 말로 보기는 어렵다. ④'설사 허락지 아니하신들'이라는 말에는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한 가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상황의 호전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너는 '이미 나의 사람'인데 '어찌 나를 버리'느냐는 말 역시 상대방에 대한 호소일 뿐이지 상황의 호전에 대한 확신과는 무관하다. ⑤㉤은 '나와의 인연을 이어 가려거든 정 소저와의 정혼을 실천하라' 정도의 뜻이다. 정 소저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하려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2. [출제의도] 동일한 인물의 발화와 글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와 [B] 모두에서 양소유는 미래에 닥칠 부정적 결과를 거론하며, 공주와 결혼하라는 황제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A]에서는 자신을 '부마로 정하'면 '정가 여자는 죽기로써 수절할 것'이니 이것이 '국정에 해'로울 것이라 하였고, [B]에서는 혼인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왕정을 잃'고 '나라가 그릇'될 수 있음을 거론하였다.

[오답풀이] ③[A]에서 양소유는 정가 여자와 정혼하기까지의 과정, 혼례를 미처 올리지 못한 까닭 등 자신의 과거사를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B]에서는 과거사가 소상히 언급되고 있지 않다.

1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에서 언급한 가족 간의 도리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란, '부부 문제'는 가족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질운의 말이다. 글쓴이는 이를 '간사한 말'이라고 평하면서 '부부 문제'에 대해 '충고를 안 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옛사람의 말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공은 마땅히 거듭 깊이 생각하여 경계하고 시정하도록 하시오.'라며 타인에게 잘못을 돌아보도록 충고하고 있다. ④유교 경전인 『대학』의 구절을 인용한 뒤 그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밝힘으로써 발언의 진정성을 높이고 있다.

1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왕정의 근본'은 '인륜'이고 '인륜의 대사'는 '혼인'이라 하고 있는데, '가도'는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니 '왕정의 근본'이 곧 '가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도'보다 '왕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가)의 양소유와 (나)의 글쓴이는 '가도'를 다른 가치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가)에서 양소유는 정 소저와 정혼하였는데도 부마가 되기를 강요당하면서 일종의 혼사 장애를 겪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갈등의 문학인 소설에서 혼사와 관련된 갈등을 형상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나)에서 '옛날에 쫓겨난 부인네들은 그래도 달리 시집갈 길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일부종사를 하여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제도가 변하여 부인네들의 재혼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부부가 헤어지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고려 때까지만 해도 남녀의 재혼이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조선에 들어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제도가 확립되면서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재혼은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

[15 ~ 20] 사회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7쪽

15.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덤핑이라는 특정한 시장 교란 상황을 제시하면서 덤핑과 관련된 제로잉 관행에 대한 찬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가)에는 자유 무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가)에 WTO의 출범 계기는 제시되어 있으나, 2008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한 WTO의 역할이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③(나)는 덤핑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그 분류 체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⑤(가)는 보호 무역주의가 부상한 오늘날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분쟁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GATT는 무역 분쟁을 줄이고 자유 무역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맺어졌고, 이 취지를 이어받아 WTO가 출범하였다.

[오답풀이] ②1930년대의 대공황도 1970년대의 석유 파동과 마찬가지로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③기술 장벽은 기술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품의 기술적 특성 및 생산 방법과 관련된 수입 요건을 강화하는 장벽이다. ④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은 피해국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제소했을 때 WTO에서 설치하여 운용한다. ⑤자국의 제도에 의해 회원국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원칙은 최혜국 대우 원칙이 아니라 내국민 대우 원칙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에 나온 대상들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덤핑의 판정 기준은 WTO의 다자간 협상(㉠)에서 정해졌으며, 상소 기구(㉡)는 그 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과 달리 ㉠이 덤핑을 판정하는 기준을 정한다고 해야 적절한 진술이 된다.

[오답풀이] ② 재심을 하는 ㉡은 판정에 대한 항소가 있을 때에 열리지만,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은 특정 항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③ ㉠에서는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반덤핑 협정 등을 도출할 수 있지만, ㉡은 회원국들이 직접 합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패널의 판정에 항소가 이루어졌을 때 재심하는 기구이다. ④ ㉠에 의해 일반적인 관세율이 정해지기도 했으나 ㉡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⑤ ㉠은 교역국들 사이의 차별 대우를 없애 무역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협정을 이끌어 내며, ㉡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는 판결을 내려 무역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1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학생의 독서 활동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호혜적 차원의 상호주의뿐만 아니라 상대가 지닌 가치 있는 것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주의도 있다. 자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국의 수출 기회를 박탈하면서 공정 무역을 내세우는 것은 상호주의가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된 것이다.

[정답풀이] 제로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제로잉을 통해 수출국의 덤핑을 제재한다. 이들이 덤핑을 제재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 무역을 내세울 수 있지만, 이것이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 무역 정책을 제재하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제로잉이 일어나는 경우에,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는 국가는 상대국(수출국)이 아니라 제로잉을 시행하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최혜국 대우 원칙은 한 국가가 어떤 국가에 부여한 최고 대우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것을 주거나 받는 호혜적 차원의 상호주의가 적용된 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내국민 대우 원칙은 회원국들의 권리가 자국의 편향된 제도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가 지닌 가치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상대가 지닌 가치 있는 것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WTO가 승소국에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여 패소하고도 패소국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불공정 무역 행위는 교역국들의 상호주의를 해치는 것이므로 승소국에 허용한 보복 조치는 무역 당사국 간에 상호주의가 회복되도록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⑤ 몇몇 수입국의 제로잉 관행이 수출국의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대가 가진 수출 전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상대가 지닌 가치 있는 것을 박탈하는 차원의 상호주의를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된 상품의 가격이 동종 상품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정상 가격보다 낮을 때에 부과되는 관세이다. '수입국'에서의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반덤핑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인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된다. ② 반덤핑 관세는 정상 가격에서 수출 가격을 뺀 값 이하만큼 부과되므로, 정상 가격에서 수출 가격을 뺀 값만큼이 부과될 수도 있다. ③ 반덤핑 관세는 반덤핑 협정에 의해 금지된 덤핑, 즉 수입국에 피해를 입히는 덤핑을 제재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⑤ 반덤핑 관세는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므로 수입국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을'은 제로잉 관행을 따르므로 은폐된 덤핑을 제재하기 위해 판매 시기별, 모델별로 덤핑 마진을 먼저 산출한 후에 마이너스 마진에 대해 제로잉을 할 수 있다. 판매 시기 또는 모델별로 덤핑 마진을 산출했을 때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순서대로 덤핑 마진을 산출하면, T1의 X는 20, T1의 Y는 -20, T2의 X는 20, T2의 Y는 -20이다. 평균했을 때 X의 덤핑 마진은 20, Y의 덤핑 마진은 -20이어서 Y는 제로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균했을 때 T1과 T2의 덤핑 마진은 각각 0이어서 판매 시기에 있어서는 제로잉의 대상이 없다. 그리고 제로잉을 전혀 하지 않고 덤핑 마진을 산출하면 그 값이 0이다.

[정답풀이] 제로잉 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정상 가격의 평균값에서 수출 가격의 평균값을 빼는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산출하면 0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모델 X에서만 20의 덤핑 마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을'은 모델별로 덤핑 마진을 먼저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덤핑이 은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을'이 모델별로 덤핑 마진을 먼저 산출하면 모델 X와 Y는 각각 20과 -20의 덤핑 마진이 발생한다. 따라서 X가 아니라 Y에서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한다. ② 판매 시기별로 덤핑 마진을 먼저 산출했을 때 T2의 덤핑 마진은 0이다. 따라서 이는 제로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을'이 제로잉을 한 뒤 덤핑 판정을 내린다면 이는 T1 시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모델 X에서 덤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모델의 가격을 평균하면 T1에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은 같으므로, '갑'이 시장 변동을 고려하여 T1의 수출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고 항변할 리는 없다. ⑤ 반덤핑 협정의 세부 조항에 의거하여 특정 판매 시기인 T1과 T2의 덤핑 마진을 산출했을 때 각각 0이 산출된다. 즉 특정 판매 시기에 있어서 수출 가격이 현저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패턴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의 수출에 대해 표적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없다.

[21 ~ 26]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쪽

21. [출제의도] 지문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는 대표 표본 정보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대표 표본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 시토신 등 네 종류의 염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종간 변이도가 크고 세대를 거듭해도 종 내 변이도가 작아야 DNA 바코드에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한쪽 말단에 수산기 대신에 수소 원자가 있다는 점이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DNA에는 4진법 코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O1 유전자가 세대를 거듭해도 자녀 세대에 항상 동일한 염기 서열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 내 변이도는 작은 편이다. 즉 자녀 세대에 전달될 때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이다.

[오답풀이] ② 동물계의 동정을 할 때에는 보통 세포핵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서 DNA를 추출한다. ③ 대조 결과의 신뢰도는 바코드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대표 표본 정보의 정확성에 의존한다. ④ DNA의 두 가닥에서 염기들 간의 결합은 상보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아데닌은 항상 티민하고만 결합한다. ⑤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바코드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23.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기술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DNA 중합 효소는 dNTP들을 하나씩 붙이면서 새로운 가닥을 만드는데, 이때 주형 가닥에 위치한 염기에 대해 상보적인 규칙에 따라 dNTP를 붙여 나간다.

[오답풀이] ① dNTP는 네 종류가 있는데, 이들 각각에는 A, T, G, C의 염기 하나씩이 들어 있다. 즉 하나의 dNTP에 여러 염기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프라이머는 주형 가닥에 붙고, 주형 가닥에 대한 상보적인 규칙으로 프라이머에 이어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프라이머로부터 시작하는 사본에는 대표 표본 정보와 비교되는 서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주형 가닥에 포함되어 있다. ④ PCR 기기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을 분리하기 위함이다. ⑤ 유전자마다 염기 서열이 다를 것이므로, DNA 바코드로 어떤 유전자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프라이머는 달라질 것이다.

24.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동물계에 속하는 한 표본에 대해 동정을 하는 가상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프라이머가 포함된 다량의 사본을 얻었고, 그 사본들의 마지막 염기들을 순서대로 읽은 배열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본은 나비목 '갑'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일치율이 95 %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풀이] 프라이머가 포함된 다량의 사본들을 토대로 얻은 염기 서열은 'CTAAGAGCT…'와 같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았다. 이 서열에 상보적 규칙을 적용하면 주형 가닥의 CO1 유전자를 알 수 있을 것이다. A와 T 간에 그리고 G와 C 간에만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보적 규칙이므로, 주형 가닥의 CO1 유전자는 'GATTCTCGA…'의 서열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치율이 95 %이므로, <보기>의 단서 조항에 CO1 유전자가 20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통해 하나의 염기가 다른 것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대표 표본 정보는 'GATTCTCGA…'에서 하나의 염기만 다른 것인 'GATTCTCGG…'의 순으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

[오답풀이] ①사본들의 마지막 염기들을 순서대로 읽고 그 앞에 프라이머를 붙여 만든 서열이 'CTAAGAGCT…'이다. <보기>의 단서 조항에 프라이머는 5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므로, 프라이머는 'CTAAG'일 것이다. 이것은 주형 가닥의 서열 중 'GATTC'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②프라이머가 있고 그 뒤에 염기들을 붙여 가서 사본들을 만들 것이므로, 5개의 염기 이후에 하나씩 염기를 붙여 가장 긴 서열이 20개인 상황이다. 즉 길이가 각기 다른 사본들의 종류는 15가지이다. ③프라이머가 결합하는 부분의 서열은 'GATTC'이다. 이 부분은 DNA 두 가닥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④프라이머인 'CTAAG'에 이어 DNA 중합 효소가 가장 먼저 연결한 dNTP는 A이다. 이것은 주형 가닥의 T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25.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시퀀싱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뒤에 이 방법을 사용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회의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정답풀이] ddNTP는 dNTP에서 수산기를 수소 원자로 교체해서 그쪽에 새로운 것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가닥에서 새로운 것이 결합할 때에는 가닥의 끝에 있는 dNTP의 수산기에 다른 개별 dNTP의 인산기가 결합한다. 따라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닥에 연결되어야 하는 쪽의 말단 부위를 수소 원자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dNTP나 ddNTP가 붙을 가닥의 끝에 노출되어 있는 말단 부위인 수산기를 수소 원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오답풀이] ①시퀀싱 방법은 PCR이 진행되는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길이가 각기 다른 사본들이 만들어져서 마지막 염기를 순서대로 읽는 방법으로 염기 서열을 확인할 수 있다. ③ddNTP는 dNTP의 개수보다는 적지만 상당량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가 다른 사본들이 골고루 생성될 수 있다. 참고로 이 상황을 추론해 보면 ddNTP를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경우 사본의 길이가 길어지기 전에 이미 다 종결되어 길이가 긴 사본을 얻기 힘들어진다. 마찬가지로 ddNTP를 지나치게 조금 투입하는 경우 길이가 짧은 사본을 얻기 힘들어진다. 이 염기들은 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ddNTP는 같은 종류를 같은 색으로 염색해야 한다. ⑤염기 사슬에서 직접 염기를 읽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시퀀싱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퀀싱 방법을 사용하려면 사본들을 길이순으로 늘어놓는 전기영동 기술이 필요하다.

26.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밝히는(밝히다)'은 문맥을 고려할 때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반드시 사고의 원인을 밝힐 것을 다짐했다.'에서 쓰인 '밝히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27 ~ 30] 현대소설

➔ **연계 지문 : 홍성원, 「무사와 악사」 (수능특강 181쪽)**

2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5.16 군사 정변에 이르기까지 정의롭지 못했던 과거의 시대상이 환기되고 있으며,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추상적인 차원에서 시대적 분위기가 암시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인물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이지 서술자의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③, ⑤'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는 기범이 종적을 감춘 뒤 그의 행적을 탐문하는 '나'와 이에 대해 답변하는 마을 사람의 대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기범의 행적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며, 대화 과정에서 떠오르는 '나'의 내면이 독백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또한 '나'는 기범의 과거 행적을 탐문하는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된 기범의 삶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쩌면 기범은 ~ 알 수 없다.', '그는 어쩌면 ~ 살다 간 것 같다.' 등 추측의 진술을 통해 기범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에서, 기범이 오일규의 장례식 뒤 자취를 감췄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나'는 기범이 죽은 오일규를 '미련한 놈'이라 칭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 기범이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왔다는 이야기에 대해 미련하다고 평하지는 않았다. ④오일규의 장례식 후 기범이 한 '요설'을 떠올리며 '나'는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기범이 갑작스레 종적을 감춘 것을 오일규의 죽음과 연관 지어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범의 잠적이 '나'와 다툰 일과 연관이 있다고 짐작하는 모습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견해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범은 '악사'와 '무사'가 서로를 경멸한다고 말했으므로, '악사'가 '무사'를 동경한다는 것은 기범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악사'가 '무사'를 찬양하는 것에서 삶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 역시 기범의 견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기범은 자신을 '악사'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럼 무사 뒤에서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거냐?'라는 '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은 다만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기범이 '악사'를 '재산이라고는 아주 잘 트인 목청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보는 점에서, 그가 '악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기범은, '무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우리(악사)는 뒷전에서 잘한다, 옳소 하고 소리나 쳐 주면'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런 맥락에서 기범은 '악사'를 '무사'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④'무사'는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위엄이나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자신을 요란스레 자랑할 수 없어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스스로를 자찬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적에 대한 타인의 존경을 바란다. '악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무사와 결탁 관계를 맺고는, 필요한 순간에 무사의 신호를 받아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며 무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읊는다.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을 지녔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사'는 자신의 실체를 알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자신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악사'를 경멸하고, '악사'는 치적을 과시하는 데 관심 없는 체하면서 뒤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유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무사'를 경멸하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⑤기범은 '악사'의 재산은 '아주 잘 트인 목청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목청으로 '무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뒷전에서 잘한다, 옳소 하고 소리나 쳐 주면' 된다고 말하며,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악사'가 자신의 재산인 '목청'으로 '무사'를 찬양함으로써 '배고프'지 않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가 기범에 대해 그가 '아무것도 믿지 않았'으며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범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자기 나름으로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기범의 삶은 타락한 세계에서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의 물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용된 부분에서 작가의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기범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을 더욱 썩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인데, 이는 '세상이 철저히 썩'으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쓸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그의 이러한 믿음은 곧 생존 의지에서 비롯되는 생명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라 판단할 수 있다. ④이 작품은 서술자 '나'가 죽은 기범의 행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각을 점차 이해해 나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기범의 의식이 문제화되는데, '나'가 마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기범의 독특한 신념과 관련하여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1 ~ 34]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김진형, 「북천가」 (수능특강 304쪽)

➔ 조위, 「만분가」

31.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죽어 '두견의 넋', '구름', '만장송', '학'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충심을 '님'('옥황', '옥황상제')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높은 산 위에서 두 기생과 함께 풍류를 즐기면서 자신이 '신선의 지경'에 온 것 같다며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남산 늦은 봄'에 '이화 가지 위'에서 우는 '두견'이나 '가을 둘 불근 밤'에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 위에 날아올라 슬피 우는 '학'은 화자의 상상일 뿐, 화자 주변의 풍경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중략' 이후 부분에서 풍경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풍경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연적봉'의 경치나 '회상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본 경치는 묘사되지 않았으므로, 두 기생이 '회상대' 위에서 노래하는 장면의 풍경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풍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ᄇᆞ람')은 '구름'이 된 화자가 '자미궁'에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여 화자가 '옥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물이고, ㉥('ᄇᆞ람비')은 '만장송(키 큰 소나무)'이 된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매개물이다. 나무는 혼자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바람을 맞거나 비를 맞으면 소리가 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ᄇᆞ람비'가 임에게 마음을 전하는 매개물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오색운')은 천상 세계의 상서롭고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여서, 비록 그것 때문에 '자청전'이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방해물이라는 부정적 의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겠다. ㉣('구름')은 화자가 죽어서 그것이 됨으로써 '옥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망하는 대상이니, 화자와 임의 만남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 볼 수 없다. ③㉢('이화 가지')은 상상 속 봄밤의 정서를 환기할 뿐 속물적 태도와 무관하다. ㉦('만장송')은 화자의 변함없는 충심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화자가 비판하려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시류에 따라 몸가짐을 달리하는 속물적 태도와는 상반되는 태도를 표상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두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무반의 기상인가 활협도 장ᄒᆞ고나'는 무관 출신인 '본관'이 화자를 위로하며 기생들을 불러 놀자고 하는 데 대한 화자의 반응일 뿐, 작가 자신의 기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세월이 글이로다'는 유배를 왔지만 배움을 청하는 선비들이 많아 늘 글을 대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말로서, 여기에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배어 있다고 보는 편이 옳다. 불평이나 고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십이루'는 화자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 여기는 공간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십이루 어듸매오'라는 말에는 현재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한탄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를 참고하면 이는 유배지에 있는 작가의 심정이 투영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이 '신선의 지경'에 왔다고 하면서, '전생의 연분'으로 '천조에 득죄ᄒᆞ여' '이 광경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죄를 지어 적강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신선의 땅을 다시 보게 된 신선인 양하는 말로 풍광에 대한 흥취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자신이 현재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이처럼 「북천가」에도 신선의 적강이라는 모티프가 나타나지만, 이 작품은 「만분가」와 달리 가상의 화자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기생들을 불러 모아 시끌벅적하게 놀아 보자는 '본관'의 제안을 '극구 사양'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비록 떳떳하고 당당하기는 하지만) 유배를 온 처지임을 잊지는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④'회상대'에 올라앉은 두 기생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작가는 '이 놀음'이 '기절'할 만큼 멋지다고 감탄한 후에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지경이라' 하는 말로써 자신이 즐기고 있는 풍류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3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40쪽

강연자는 '몇몇 해수욕장은 물놀이에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면 이안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라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강연에서 자료가 활용된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41쪽

강연자는 이안류 예보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 주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 정보 애플리케이션 캡처 화면을 ㉢에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강연자는 이안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형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인공 구조물이 없어 바다가 트여 있고 파도가 해안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지형'의 그림을 제시하였다. ②, ③이안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이안류로 인한 사고를 촬영한 뉴스 영상을 제시하였다.

37. [출제의도] 학습 활동지에 나타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4쪽

학생은 ⓓ에서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의 대처 방안이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에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8 ~ 41] 작문 -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64쪽

38. [출제의도] 기자의 취재 계획이 기사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메모한 취재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연구소의 보고서' 하위 항목으로 '○○ 마을 내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의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연구소의 자료에는 ○○ 마을에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만 제시되어 있을 뿐 ○○ 마을 내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 [출제의도] 기자가 기사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 <보기>를 비교해 보면, <보기>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이 ㉠의 첫째 문장으로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는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면 산림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와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면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라는 중복된 내용이 있다. 이에 반해 ㉠의 첫째 문장은 <보기>의 두 문장에서 중복 사용된 내용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기자는 ㉠과 같이 고쳐 쓰기 위해 '글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중복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해야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40. [출제의도] 협상에 나타난 '주민 측'의 협상 전략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주민 측'은 '14기나 되는 풍력 발전기가 ~ 고통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의 심각성을 이유로 풍력 발전기를 10기 이내로 줄일 것과 이격 거리를 1.5 km로 늘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A]에서 '주민 측'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다음 '이 같은 산림 훼손을 ~ 10기 이내로 설치해 달라'는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C]에서 '주민 측'은 '풍력 발전 단지 조성으로 ~ 우려가 있다고 하니'라고 하여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D]에 앞서 '업체 측'은 '주민 측'에 발전 단지 근무 인력의 10 %를 마을 주민으로 채용하는 게 어떤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D]에서 '주민 측'은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근무 인력의 10 %만 ~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여 '업체 측'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혔다. 그런 다음 '비전문 인력의 채용을 ~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⑤[E]에서 '주민 측'은 '대신에 풍력 발전으로 ~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주민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위한 복지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그런 다음 '노인 회관의 설치와 ~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업체 측'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협상에 나타난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업체 측'은 자신들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풍력 발전기 14기를 설치하는 데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하며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에서 '업체 측'은 자신들이 최대한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민 채용 비율이 15 % 정도인 만큼 이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하며 자신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42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3쪽

42.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고서의 도입부에서 조사 목적과 필요성 등을 밝힐 수 있지만 (가)에서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실태와 인식과 '관련한 연구 자료가 부족함을 밝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⑤ 조사 목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던 내용은 청소년들이 비속어 사용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가의 사실 여부이다. '결론 및 제언'의 첫째 문단 마지막에 조사 결과가 이러한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임을 제시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조언을 반영하여 보고서의 '결론 및 제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고서의 '결론 및 제언'에는 조사 결과를 해석한 결론과 조사의 의의, 한계점 등을 밝힐 수 있다. 친구의 조언에 따라 이번 조사의 결과가 통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는 의의를 밝히고, 이번 조사로 알아보지 못한 점을 언급해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⑤이다.

44.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두 글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이고, (나)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작문 목적을 고려할 때 (나)는 비속어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들면서 비속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독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보기>에 제시된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의 반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세 가지 설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제목을 달아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하지는 않았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형태소를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7쪽

'말솜씨'의 '솜씨'는 명사이므로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검버섯'의 '검-'은 형용사 어간이므로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헛손질'의 '헛-'은 접두사이므로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풀이] ① '코웃음'의 '웃-'은 동사 어간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불을 끄다'의 '을'은 조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글쓴이'의 '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조릿대'의 '대'는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형태소 분석 및 품사 정보 부착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7쪽

연우는 ⓐ에서 음운 분석 활동을 수행하였다. 음운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활동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③ '군밤'은 '굽-', '-은', '밤'의 세 개 형태소로 분석된다. 이 중 '밤'에는 명사라는 정보가 매겨질 것이다. ④ 지문에서 유일 형태소는 몇몇 어휘에서만 출현하는 특수한 형태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솔'은 유일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⑤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라고 지문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공통된 형태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의미가 다른 '베개'와 '쓰개'의 의미 차이는, 형태소 '베-'와 '쓰-'의 의미적 변별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품사의 문장 성분으로서의 쓰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5쪽

'까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격 조사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멋쩍은'은 '멋쩍다'의 활용형으로, 문장에서 '표정'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③ '저'는 관형사로, 명사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④ 명사 '사람'이 보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보어로 쓰이고 있다. ⑤ 명사 '이전'이 범위를 나타내는 보조사 '부터'와 결합하여 '있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38.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25쪽

'의도적 계약'에서 '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계'는 '다만 2'에 따라 '게'로도 발음한다.

[오답풀이] ② '흰뺨검둥오리'의 '흰'은 '다만 3'에 따라 항상 '힌'으로 발음한다. ③ '민무늬의 자개'의 '늬'는 '다만 3'에 따라 항상 '니'로 발음한다. ④ '인쇄물이 넘쳐서'의 '쇄'는 '제5항'에 따라 항상 '쇄'로 발음한다. ⑤ '예산을 따져 보니'의 '져'는 '다만 1'에 따라 항상 '저'로 발음한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4쪽

어간의 끝소리 'ㄱ, ㅂ, ㅅ, ㆆ' 뒤에서는 '-숩-'이 나타난다. '-슳-'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형태이므로, '-고' 앞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었으므로 '-슳-'이 나타난다. ② 어간의 끝소리가 'ㅊ'이므로 '-줍-'이 나타난다. ④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므로 '-숩-'이 나타난다. ⑤ 어간의 끝소리가 'ㄷ'이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었으므로 '-즣-'이 나타난다.

[40 ~ 42] 매체 1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50쪽

4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매체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문자와 함께 시각 언어인 그림을 사용해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특정 일자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것은 (가)이다. ② (가)와 (나) 모두 크기와 굵기가 다른 문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③ 수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배열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나)이다. ④ (가)는 소리나 동영상인 매체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기사형 광고와 검색 광고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측의 동영상 역시 공기 청정기를 광고하고 있으므로 검색어에 대응하는 광고이다. 따라서 동영상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라는 점을 숨기면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언어 표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여'는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그러므로 ㉤에서 앞 절과 뒤 절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

[43 ~ 45] 매체 2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57쪽

43. [출제의도] 생산된 매체 자료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영'은 '자동 제세동기 사용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은 출처가 개인 SNS라서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네요'라며 정보의 출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특정 내용이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매체 자료가 공적인 맥락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은 표현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사람은 '민준'이다. ④ 매체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은 '진우'이다.

44. [출제의도] 초안에 반영된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섯 번째 카드에 교내에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된 장소('1층 중앙 현관', '3층 실험실 앞', '강당')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때 지도는 활용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카드에서는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된 모습을 사진을 활용하여 보여 주고 있다.

45. [출제의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현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세동이 늦게 시행될수록 환자의 생존율이 점차 감소함을 보여 주는 그래프'를 세 번째 카드에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보여 주는 그래프가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